

## 신 이식 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의 NK/T-cell lymphom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병리학교실<sup>1</sup>

김상욱, 이소영, 신진호, 조상경, 차대룡, 권영주, 조원용, 표희정, 김형규, 원남희<sup>1</sup>

**서 론:** 신이식 후 발생하는 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PTLD)는 1-2%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발생후 치명적인 경과를 나타낼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PTLD는 B-cell 기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에서 T-cell 기원이지만 저자들은 신이식 후 드물게 발생하는 NK/T-cell lymphoma가 위장과 심장 등의 여러 장기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4세 남자 환자로 1993년에 FSGS로 진단된 후 1999년 2월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1999년 8월에 신장이식을 시행받았으며(cyclosporin, methylprednisolone, azathioprine 투여) 2002년 1월부터 백혈구 3790/mm<sup>3</sup>(neutrophil 58.6%, lympho 31.5%, mono 5.6%, eos 1.5%, baso 0.2%), 혈색소 8.9g/dL, 혈소판 247000/mm<sup>3</sup>을 보인 후 점차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여(CBC: 3090/mm<sup>3</sup>-8.1mg/dL-240000/mm<sup>3</sup>) azathioprine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던 중, 내원 2주전부터 발열과 전신통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혈압은 120/70mmHg, 맥박은 분당 96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은 39.2℃였다. 결막에 빈혈소견이 있었으며 경정맥 확장소견은 없었고 만져지는 경부의 종물도 없었다. 심음과 호흡음은 정상이었다. 복부진찰에서 압통이나 만져지는 종물은 없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9.5g/dL, 헤마토크리트 29.9%, 백혈구 2300/mm<sup>3</sup>(neutrophil 54.9%, lymph 39.2%, mono 3.6%), 혈소판 84000/mm<sup>3</sup>이었고 생화학검사에서 총단백 5.5g/dL, 알부민 3.2g/dL, AST 359 IU/L, ALT 530 IU/L, BUN/Cr 26/1.8 mg/dL, Na-K-Cl 135mEq/L-4.5mEq/L-105mEq/L 이었고, LDH 3667 IU/L(정상: 263-450 IU/L) PT>120%이었다. PB smear에서 normocytic normochromic anemia, leukopenia, thrombocytopenia, toxic granule 만 관찰되었으며 blast cell 은 없었다. 흉부방사선에서 전반적인 폐침윤이 보였고, 복부초음파에서 이식신은 정상이었으나 비장이 경미하게 커져 있었다. 내원후 항생제(piperacillin, cravit, azithromycin)를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열(39.2℃)과 전신 쇠약감이 점차로 심해지고 IgM CMV Ab (+), CMV Ag(-) 소견을 보여 gangcyclovir IV를 추가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다. 내원후 3일째부터 보이던 설사가 지속되어 상부위장관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장과 십이지장에서 다발성 미란과 출혈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장내시경에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위장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만성위염과 진균감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lipid formulation of amphotericin B(AmBisome)을 투여하였다. AmBisome 투여 3일 후 진균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상부위장관 내시경하 조직검사에서 NK/T-cell lymphoma로 진단되었으며 조직검사후 위장관 출혈이 심해져서 환자는 사망하였다.

**결 론:** 신 이식 후 발생하는 PTLD는 비교적 드물지만 조기 진단이 치료 경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이식 후 발생한 원인불명의 발열을 감별진단할 때 PTLD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